

직업인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근무시 유니폼을 착용하는 여성직업인을 중심으로—

유 명의 · 윤 영 아*

동신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조교수,
*광양전문대학 의상학과 전임강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alues and Selected Clothing Behavior for a Group of Working Women

Myung-Iee Yoo and Young-A Yo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Assistant Professor of Dong-Shin University
*Dept. of Clothing Design, Full-Time Instructor of Kwang-Yang Junior College

目 次

Abstract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1. 가치관 및 사회적 가치관
2. 가치관과 의복행동
3. 직업과 의복행동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3. 자료분석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 환경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3. 직업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4.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values and selected clothing behavior variables for a group of working women in Kwang

Ju, Chonnam,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as follows:

1. There were differences in selective clothing variables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ge, marital status, religion.
2. There were differences in selective clothing variables according to their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type, length of employment, income.
3.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social values and selected clothing behavior variables: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trend and five clothing behavior variables: social approval, psychological dependence, satisfaction, comfort, interest.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relation and one clothing variables; management.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popularization and three clothing behavior variables: social approval, psychological dependence and management.

I. 서 론

인간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 까지 거의 대부분을 의복을 착용한 상태로 생활하므로 의복행동은 인간행동의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Horn¹⁾은 개인에 따라 의복에 대한 흥미가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각 개인의 가치관이 의복에 반영되어 나타날 뿐 아니라 의복이 착용자의 많은 부분을 알려주는 암시적 언어(sign language)라고 표현하면서 의복의 상호전달기능을 설명하였고, Roach²⁾는 의복이 개인의 신념, 사회적 지위나 권력, 착용자의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대변하는 표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복은 인간의 문화, 생활양식, 사회경제적 진보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된다³⁾고 볼 수 있다. 최근의 급속한 사회 변화는 여성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많은 여성들에게 직업을 갖게 하였다. 직업을 가진 여성이 직장 및 가정생활을 포함한 모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진 가치관이 그들의 업무수행에 또 그들의 의복 행동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리라 보아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많은 여성직업인 가운데서도 근무시에 주로 유니폼을 착용하는 여성 직업인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그들의 사회적 가치관과 본 연구에서 선택한 의복행동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및 직업특성에 관련된 변인과 의복행동의 관계를 비교분석 함으로서 비교적 의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여성직업인들의 의복행동을 파악하고 그들 자신을 위한 의복선택 뿐 아니라 그들의 근무복 제작 및 구입에 관여하는 고용주 또는 디자이너들에게도 과감적인 근무복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치관 및 사회적 가치관

과거에는 가치관에 대한 관심이 철학 신학 등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근래에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뿐 아니라 행동과학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이전에는 이론적 관념적으로 다루어졌으나 J. Dewey⁴⁾ 등의 주장에 힘입어 과학적 경험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교육 심리학계에서의 연구가 활발하여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적용시켜 오고 있다.

F. R. Kluckhohn과 F. L. Strodtbeck⁵⁾에 따르면 가치관은 부단히 계속되는 인간행동의 흐름에 질서와 방향을 주며 공통적인 인간문제를 해결하는데 의견을 주는 것으로 분석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평가과정의 세요소 - 인지적(cognitive), 정의적(affective), 방향적(directive)의 완전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복합적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유형을 가진 원칙이며 이러한 평가과정은 공통된 인간문제의 해결에 관련되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간행위와 사상에 대하여 질서와 방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C. Kluckhohn⁶⁾ 등은 가치관이란 인간의 위치,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 대 환경 및 대인관계 등과 관련되는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개념으로서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이라 정의하였고 T. M. Newcomb⁷⁾ 등도 가치관은 행동의 목표와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적 개념-행동의 표준 또는 태도군의 대상이 되는 목표라고 정의하였다. 가치관에 대한 연구로는 우선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제작에 많은 업적을 남긴 Allport & Vernon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가치관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I. E. Bender⁹⁾, E. N. P. Nelson 등¹⁰⁾에 의하여 종단적으로 연구되었고 F. R. Kluckhohn과 F. L. Strodtbeck¹¹⁾은 문화인류학적 측면의 연구를 시도하여 문화구조에 있어서 가치체계의 위치와 기능에 대하여 상세히 논술하여 상이한 문화 혹은 민족간의 가치관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의미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사용한 C. E. Osgood¹²⁾의 연구와 유사등간법(equal appearing intervals method)를 이용하여 한 현상에 대한 심리적 연속체로서의 가치관을 척도화시켜 교육문제를 연구한 Remmers¹³⁾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을 연구한 홍승직¹⁴⁾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가치관을 다른 변인 즉 가정, 가족제도, 교육, 가족형태, 매스미디어, 종교, 자아개념 등과 관련지어 연구하여 왔다. 황용연¹⁵⁾에 의하면 가치관이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중재하는 매개변인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핵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 및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가치관 측정의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가치관의 구성영역에 대하여는 인간의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한 E. Spranger의 견해에 기초한 Allport & Vernon¹⁶⁾의 분류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인간의 가치유형을 이론적, 종교적, 경제적, 심미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등의 6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지 형식의 가치관 검사(study of values)를 개발하였다. 이들의 6개의 가치유형은 독립적인 단일가치를 측정하지 않고 6가지를 상호비교하는 상대적 측정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황용연¹⁷⁾은 가치관척도를 구성함에 있어 이러한 6가지 인격적 가치유형에 기초하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가정적, 도덕, 윤리적, 종교적 영역 등 6가지로 하였으며 Allport 등의 상대적 측정방법과는 달리 6가지를 각각 단일 가치관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가치관 영역을 6개의 하위영역으로 세분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변인들을 독립적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된 황용연의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풍조, 인간관계, 대중화 등의 사회적 가치관을 그 변인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2. 가치관과 의복행동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연구는 최근 수년동안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Lapitsky¹⁸⁾는 개인이 지니는 일반적 성향의 가치관과 의복에 대한 가치관과의 관계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들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의복의 심미적인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비중을 둔다고 하였다. Creekmore¹⁹⁾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인간의 기본욕구 및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집단은 의복의 질감에,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집단은 의복의 가격에 종교적 가치관이 높은 집단은 의복의 정숙성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 이들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 Hoffman²⁰⁾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일반적 가치관과 의복기호와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집단은 드레시한 의복에,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집단은 의복의 적합성에, 정치적 가치관이 높은 집단은 의복의 가격과 질에 높은 흥미가 있다고 하였다. 남자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Brown²¹⁾의 연구에서는 이들의 일반적 가치관과 의복에 대한 태도 사이에 서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Richard & Hawthorne²²⁾은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가치관과 신체에 대한 관심과 의복에 대한 태도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로는 김광경²³⁾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의복관심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상호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안정자²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의복의 선호색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볼 때 연구대상에 따라 특정한 하위가치관과 의복의 서로 다른 측면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한 가치관이 특정한 인간의 행동 또는 태도에 더욱 관련이 되며 이는 의복에도 적용된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의 연구들로는, Christiansen & Kernaleguen²⁵⁾등의 연구로서 이들은 종교적 가치관과 의복선택과의 관계를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종교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더욱 더 보수적이면서도 정숙성을 중시하는 의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고 Kness²⁶⁾는 사회·정치적 가치관과 의복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서로 다른 의복스타일의 착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보수적인 의복을 착용하는 집단이 더욱 보수적인 사회·정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경희²⁷⁾는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의 착용동기를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집단일수록 의복의 착용동기로 장식성과 파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가치관이 낮은 집단일수록 예의성과 보호성을 의복의 착용동기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3. 직업과 의복행동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변동의 결과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을 높였으며 생활양식과 역할을 변화시켰고 가치관 및 직업관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더욱 많은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 하며 가지고 있는 직업의 종류도 전문직에서 단순 잡급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복을 어떻게 착용할 것인가는 직업의 성격과 착용자의 사회적 신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고 Branstetter가 직업과 의복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언급²⁹⁾하였듯이, 직업과 의복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업적인 성과에서 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Form & Stone은 직업과 의복의 사회적 의미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사무직(white-collar)종사자들과 기능직(blue-collar)종사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³⁰⁾을 밝혔고, Aslakson은 사무직과 기능직 종사자의 부인을 대상으로 유행에 대한 태도를 사회계급과 관련시켜 연구한 결과 사무직 종사자의 부인은 유행에, 기능직 종사자의 부인은 깨끗함과 단순함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³¹⁾하였다.

간문자³²⁾는 직업과 의상흥미영역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박길순³³⁾은 직업의 종류에 따른 의복행동을 연구하였고 김광경³⁴⁾은 남성적으로 분류되는 직업에는 남성적 의복이, 여성적으로 분류되는 직업에는 여성적 의복이 적합하고 너무 극단적인 의복은 직장의복으로 적당치 않다고 하여 직업특성에 적합한 의복디자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김원옥³⁵⁾은 직업의 종류에 따른 직업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이선화³⁶⁾는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직업과 의복행동과의 상관성을 연구하여 보고하는 등 직업과 의복행동과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가치관은 대단히 중요하며 어떠한 하위 가치관 영역 보다도 사회적 가치관이 그들에게나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나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영향은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을 포함한 생활전반에 반영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³⁶⁾에 따르면 여성들이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은 주로 판매직, 서서비스직, 사무직이며 사무직에서도 하급사무직(타자원, 경리사원)이 전체 사무직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문직의 경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정도이며 직종별로 보면 전문직 여성의 54%가 교사나 간호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이 근무시에 착용하는 근무복에는 자유롭게 선택하여 착용하는 자유복과 고용주에 의하여 선택된 획일화된 유니폼의 2종류가 있어 직종에 따라 선택되고 있으나 더 많은 여성직업인들이 유니폼의 착용을 요구하는 서비스직 또는 하급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직종들이 주로 유니폼을 착용하는 직업임을 고려하여 근무시에 주로 유니폼을 착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문항, 6개 사회적 가치관에 관한 문항 그리고 8개의 의복행동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등 총 92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 사회적 가치관(Social value)

황용연³⁷⁾이 제작한 가치관 검사 중에서 여성직업인의 의복행동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되는 사회적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5단계 Likert척도로 평정하였다. 측정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

사회풍조(Social Trend) ; 사회변화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단기준을 의미하며 외래풍조와 금전만능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관계(Human Relation) ; 개인위주의 사고방식과 불신풍조를 수용하는 개인의 가치기준을 의미하며 개인주의와 불신사조의 하위변인을 포함한다.

대중화(Popularization) ; 매스컴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 사회계층의 생성과 존재를 수용하는 개인의 가치기준을 의미하며 매스컴의 영향력과 사회 계층화에 대한 개인의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의복행동(Clothing behavior)

A. M. Creekmore³⁰⁾의 'Composite Measures of Specific Clothing Variables'를 토대로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측정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

정숙성(Modesty) ; 의복을 착용할 때 사회규범을 준수한다든지 신체노출을 삼가하는 의복행동을 의미한다.

심미성(Aesthetic) ; 의복에 대한 미적감각을 추구하는 의복행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승인성(Social Approval) ; 집단의 의복기준에 동조하여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의복행동을 의미한다.

관리성(Management) ; 의복을 계획성 있게 구매하며 시간, 금전, 정력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족성(Satisfaction)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복의 가짓수, 질, 선택방법 및 유행에서 만족하는지를 의미한다.

심리적 의존성(Psychological Dependence) ; 의복이 주는 느낌, 기분, 분위기, 감정변화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행동을 의미한다.

안락감(Comfort) ; 의복에 있어서 온도나 질감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편안한 의복을 착용하려 하는 의복행동을 의미한다.

흥미성(Interest) ; 의복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여러가지로 연출해 보며 실험해 보고자 하는 의복행동을 의미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광주, 순천, 목포 등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근무시에 주로 유니폼을 착용하는 20대~50대의 여성직업인을 대상으로 1994년 8월 15일~9월15일 까지 600부의 질문지를 해당되는 직장에 배부하여 총 485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무성의한 것을 제외한 405부를 최종적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3. 자료분석

사회적 가치관 및 의복행동에 관한 질문지는 2번의 예비조사를 거쳐 질문지의 각 변인별 내

적 일치도를 측정 한 결과, 측정치(Cronbach's α)가 .70이상을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각 변인에 대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환경변인 및 직업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One-Way ANOVA)와 그룹별 DUNCAN 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Pearson's Correlation(r)을 산출하였다. 이상의 통계치는 SAS /pc Package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405)

구분	N(%)	구분	N(%)
직업		종교	
공무원	40 (9.9)	불교	40 (10.0)
간호사	101 (24.9)	천주교	57 (14.2)
은행원	80 (19.8)	기독교	115 (28.7)
기능직	38 (9.4)	무교	120 (44.9)
판매직	96 (23.7)	기타	9 (2.2)
기타	50 (12.3)		
연령		근무기간	
19세 이하	10 (2.5)	6개월 미만	58 (14.3)
20~29세	309 (76.3)	6개월 이상~2년미만	101 (24.9)
30~39세	77 (19.0)	2년 이상~5년미만	131 (32.3)
40~이상	9 (2.0)	5년 이상~10년미만	78 (19.3)
학력		10년 이상	37 (9.1)
중졸 이하	0 (0.0)	평균 월수입	
고졸	252 (63.0)	30만원 미만	14 (3.5)
전문대졸	74 (18.5)	30만원~50만원미만	111 (27.6)
대졸	70 (17.5)	50만원~80만원미만	163 (40.5)
대학원졸	2 (0.5)	80만원~100만원미만	84 (20.9)
기타	2 (0.5)	100만원 이상	30 (7.4)
결혼			
기혼	112 (27.7)		
미혼	291 (72.0)		
기타	1 (0.2)		

2. 환경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비교적 적은 집단에서 의복의 만족성과 흥미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는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상태와 의복행동과의 관계에서는 흥미성에서만

<표 2>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F)

(N=405)

	~ 19세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F-value
정숙성	12.80(A)	13.00(A)	13.64(A)	15.12(A)	2.10
심미성	11.40(A)	13.05(A)	12.90(A)	12.59(A)	1.39
사회적승인	13.30(A)	13.51(A)	12.96(A)	12.62(A)	1.46
관리성	12.00(A)	12.58(A)	12.80(A)	13.75(A)	1.39
만족성	13.70(AB)	12.84(AB)	12.81(AB)	11.62(B)	2.48*
심리적의존	13.00(A)	13.92(A)	13.33(A)	14.00(A)	1.54
안락감	12.30(A)	12.95(A)	12.57(A)	12.75(A)	1.25
흥미성	12.50(A)	12.74(A)	12.01(A)	11.00(B)	3.20**

*P>.05 **P>.01 ***>.005

()안은 Duncan-grouping

<표 3> 결혼 상태에 따른 행동의 차이(T)

	정숙성	심미성	사회적 승인	관리성	만족성	심리적 의존	안락감	흥미성
기혼	13.61	12.37	13.08	12.84	12.98	13.40	12.60	11.96
미혼	13.00	12.98	13.49	12.56	12.78	13.93	12.95	12.78
T-value	2.23	0.29	1.59	0.94	1.62	2.40	1.56	8.00***

<표 4> 종교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F)

(N=405)

	불교	천주교	기독교	무종교	F-value
정숙성	13.35(A)	13.37(A)	13.50(A)	12.87(A)	1.40
심미성	12.66(A)	12.92(A)	12.72(A)	13.20(A)	0.75
사회적승인	13.38(A)	13.01(A)	13.31(A)	13.51(A)	0.64
관리성	12.65(A)	12.70(A)	12.52(A)	12.66(A)	0.15
만족성	12.60(A)	2.83(A)	12.86(A)	12.85(B)	0.47
심리적의존	13.74(A)	13.98(A)	13.43(A)	13.95(A)	1.17
안락감	13.00(A)	12.98(A)	12.92(A)	12.76(A)	0.60
흥미성	12.22(A)	12.50(A)	12.31(A)	12.83(A)	1.47

*P>.05 **P>.01 ***>.005

()안은 Duncan-grouping

P<.001 이상의 현저한 유의차를 나타내어 미혼의 청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복에 흥미를 갖는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종교와 의복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직업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직업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는 <표 5> 와 같다. 정숙성, 심미성, 사회적 승인 및 심리적 의

존 변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사무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장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의복행동을, 기능직 및 판매직은 정숙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관이한 의복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어 비록 유니폼이라 할지라도 일의 성격에 따라 노출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디자인의 의복이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Mcgulloug 등³⁹⁾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여성의 선택에 흥미를 갖게 되며 많은 여성들이 의복을 성적 매력향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이것은 노출, 은폐, 신체의 강조 및 의복의 성적 상징을 이용하여 성취된다고 하였고 Cunningham⁴⁰⁾ 역시 여성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간에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성적 매력을 논의함에도 정숙성의 개념은 대두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근무시 주로 유니폼을 착용하는 여성직업인들로 근무시 확실적인 복장을 착용함에도 직업에 따라 나타나는 정숙성의 차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보여진다.

심미성은 은행원이 가장 높게 그리고 공무원이, 판매원, 간호사, 기능직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본 연구의 대상이 주로 유니폼을 착용하는 직업인임을 생각해 볼 때 업무의 성격에 따라 유니폼에 있어 미적인 디자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유니폼은 기능을 중시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값이 싼 것을 추구하여 왔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간은 아름다우면서도 몸에 잘 맞는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만족감을 얻게 되며 보는 사람도 즐거움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디자인의 유니폼으로 고객과 직업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사회적 승인 및 심리적 의존변인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는 유니폼을 포함하여 직업인들이 착용하는 의복의 상징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겠다. 직업인의 의복, 특히 유니폼은 신분의 보장은 물론 소속된 직장을 대표할 수 있는 역할과 의무가 주어진다. 따라서 유니폼을 입었을때 자신의 행동이나 자기 자신보다도 훨씬 큰 역할을 하게도 되고 또 의무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Houit⁴¹⁾에 의하면 계층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외관중 의복만큼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는 복합적인 상징물은 없다고 할만큼 직업인의 유니폼은 중요하다. 오늘날의 유니폼은 과거의 작업복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고

<표 5> 직업의 종류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N=405)

의복행동 직업	정숙성	심미성	사회적 승인	관리성	만족성	심리적 의존	안락감	흥미성
공무원	14.42(A)	13.31(AB)	12.48(C)	12.90(A)	12.97(A)	14.39(A)	12.71(AB)	12.22(A)
간호사	13.77(B)	12.65(B)	13.02(BC)	12.65(A)	12.90(A)	13.53(A)	12.80(AB)	12.24(A)
은행원	13.34(B)	13.75(A)	13.65(AB)	12.79(A)	12.98(A)	14.11(A)	12.84(A)	12.94(A)
기능직	12.44(C)	11.44(C)	12.76(C)	12.21(A)	12.64(A)	12.62(B)	12.21(B)	12.26(A)
판매원	12.36(C)	13.37(AB)	13.81(AB)	12.63(A)	12.62(A)	13.83(A)	13.09(A)	12.83(A)
기타	12.68(C)	12.52(B)	14.02(A)	12.46(A)	12.94(A)	14.08(A)	13.10(A)	12.60(A)
F-value	5.91***	5.77***	4.92**	0.77	0.72	3.40**	1.68	1.76

* P>.05 ** P> .01 ***>.005

()안은 Duncan-grouping

<표 6> 근무기간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N=405)

의복행동 근무기간	정숙성	심미성	사회적 승인	관리성	만족성	심리적 의존	안락감	흥미성
6개월이내	12.71(B)	12.89(A)	13.71(A)	12.35(A)	12.78(A)	13.29(AB)	13.10(A)	12.80(A)
6개월~2년	13.05(B)	12.94(A)	13.61(A)	12.82(A)	12.95(A)	14.12(A)	13.02(A)	12.76(A)
2~5년	13.05(B)	13.09(A)	13.32(AB)	12.54(A)	12.73(A)	14.00(A-)	12.84(A)	12.67(A)
5~10년	13.15(B)	12.76(A)	13.22(AB)	12.65(A)	12.97(A)	13.67(AB)	12.61(A)	12.20(A)
10년 이상	14.51(A)	13.13(A)	12.77(B)	12.83(A)	12.73(A)	13.10(B)	12.56(A)	12.02(A)
F-value	2.98*	0.25	1.56	0.78	0.48	2.43*	1.14	1.75

*P>. 05 **P>. 01 ***>. 005

()안은 Duncan-grouping

<표 7> 월수입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N=405)

의복행동 월수입	정숙성	심미성	사회적 승인	관리성	만족성	심리적 의존	안락감	흥미성
30만원 미만	13.28(A)	12.36(A)	13.21(A)	12.31(A)	13.43(A)	14.36(A)	13.00(A)	13.29(A)
30~50만원	12.55(A)	12.77(A)	13.70(A)	12.73(A)	12.96(B)	13.88(A)	13.05(A)	12.71(AB)
50~80만원	13.22(A)	13.07(A)	13.48(A)	12.73(A)	12.84(AB)	13.78(A)	12.81(A)	12.66(B)
80~100만원	13.74(A)	13.07(A)	12.95(A)	12.41(A)	12.74(AB)	13.78(A)	12.78(A)	12.06(B)
100만원 이상	13.46(A)	12.97(A)	12.78(A)	12.79(A)	12.58(B)	13.42(A)	12.49(A)	12.03(B)
F-value	2.75	0.45	2.34	0.65	1.00	0.48	0.81	2.43

*P>. 05 **P>. 01 ***>. 005

()안은 Duncan-grouping

있는 시점에서 여성직업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하여 만족과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작업복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낀다.

근무기간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집단에서는 정숙성을 매우 중요시하며 2년 이하의 비교적 짧은 기간을 근무한 직업인들은 의복이 주는 기분이나 분위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월수입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는 <표 7>에서 볼 수 있다. 두 변인들 사이에 아무런 유의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을 근무복으로 자유복을 착용하는 다른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유니폼을 착용하는 여성직업인들로 한정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사회적 가치관변인과 의복행동변인과의 상관관계는 <표 8>과 같다. 의복행동변인중 사회적 승인과 심리적 의존변인은 사회계층변인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가치관 하위변인과 높은 유의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정숙성, 심미성과 사회적 가치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관리성과 개인주의 및 메스컴 의존과, 만족성과 안락감과 사회풍조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흥미성은 금전만능과의 사이에서만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

<표 8>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R)

(N=405)

사회적 가치관 의복행동	사회풍조		인간관계		대중화	
	외래풍조	금전만능	개인주의	불신사조	매스컴의존	사회계층
정숙성	0.001	0.016	0.049	0.074	0.045	0.092
심미성	0.055	0.039	0.075	0.073	0.065	-0.016
사회적승인	0.267***	0.195***	0.189***	0.138**	0.146**	0.097
관리성	0.113	0.104	0.154**	0.118	0.140**	0.097
만족성	0.147**	0.142**	0.129	0.080	0.113	0.065
심리적의존	0.201***	0.225***	0.147**	0.213***	0.196***	0.057
안락감	0.192***	0.164**	0.033	0.087	0.119	0.066
흥미성	0.112	0.186***	0.068	0.048	0.067	0.100

*** p < .001 ** p < .01

다는 금전만능의 사회풍조를 쉽게 받아 들일수록 의복에 더욱 흥미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들은 비록 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Levin & Black⁴²⁾의 연구와 김경희⁴³⁾, 백선영⁴⁴⁾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남녀교사를 대상으로한 백선영의 연구에서는 전통이나 인습을 거부하며 외래사조나 혁신적인 서구의식을 쉽게 받아들이는 외래풍조와 의복의 예의를 고수하려는 정숙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은주⁴⁵⁾ 등의 연구는 외래풍조와 의복의 심미성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에 대하여 외래풍조를 쉽게 받아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장식할 것이다거나 성적인 매력을 나타냄으로서 아름다움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복의 심미적 측면을 중요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등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의복을 착용하는 여대생, 주부 그리고 교사와 유니폼을 착용하는 본 연구대상과의 의복착용생활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 유의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적 승인성과 본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적 가치관 변인들과 높은 유의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의 준거집단에 동조하여 타인으로부터 승인이나 소속감을 얻기 위하여 의복을 착용하고자 하는 의복이 사회적 승인을 중시하는 의복행동임을 생각해볼 때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을 수용하는 사회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직장이라는 준거집단속에 소속되고 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안락하다든가 기분이 좋다든가 또는 기분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의복이 주는 심리적 영향에 의존하려는 의복행동인 심리적 의존변인과 사회적 가치관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Chamber & Morton⁴⁶⁾은 일반적으로 의복에 대한 심리적 변화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고 Kally⁴⁷⁾ 등은 청년기에 적당한 의복이 없어서 사회참여를 못하는 경우에 좌절감을 느껴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을 유니폼을 착용하는 본 연구대상이 여성이고 사회활동을 하는 직업인이며, 또 2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복의 관리성과 개인주의 및 매스컴과, 만족성 및 흥미성은 금전만능과, 그리고 안락감은 사회풍조와 각각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합리성과 간편함 그리고 안락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공통된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의복의 만족성 및 흥미성이 금전만능과 높은 상관관계는 최근의 우리 사회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의복의 과시적 소비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않다⁴⁰⁾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사 대상자의 환경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연령과 의복의 정숙성 및 흥미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정숙성을 중요시하고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흥미성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나 종교와는 무런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 2) 직업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정숙성, 심미성, 사회적 승인 및 심리적 의존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숙성을 중시하고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심리적 의존에 많은 비중을 두지만 월수입의 많고 적음은 의복행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 3)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는 각 하위변인들 사이에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사회풍조와 사회적 승인, 만족성, 심리적 의존 및 안락감과 $P < .01$ 이상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고 인간관계 및 대중화와 사회적 승인, 심리적 의존 그리고 관리성과의 상관관계에서 $P < .01$ 이상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로 부터 여성직업인들의 의복행동은 환경변인 및 직업변인과 서로 관련이 있고 또한 그들의 사회적 가치관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치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의복행동이 인간행동의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임을 생각해 볼 때 위의 결과들은 가치관과 의복행동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그대로 간파할 수 없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주부, 학생 그리고 자유로운 복장의 직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들과의 많은 상이점들은 착용한 의복이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유니폼을 착용하는가는 그들 자신에게나 그들의 유니폼을 선택한 고용주에게 개인의 만족이나 업무의 효율면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디자인, 색상, 재질 등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올린 결과 90%이상이 평소 외출복으로 활용할 만큼 만족하였으며 그 결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는 모기업의 경우⁴¹⁾가 그 좋은 예라 생각한다. 즉 과거 작업편의와 저렴한 가격만이 선택의 기준이었던 때와는 달리 좋은 옷이 새로운 생각을 부르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착용자의 심리적 만족감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실증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가 유니폼을 제작 또는 선택하는 디자이너 혹은 선택권을 가진 고용주 등에게 유용하되리라 생각하며 아울러 실제로 이러한 유니폼을 착용하는 직업인 개인에게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1. Horn, M. J., *The Second Skin*,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276, 1975.
2. Roach, M. E. & Eicher, J. B.,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 Y. : John Wiley & Sons, Inc., 6, 1965.
3. Latzke, A., Hostetter, H. P., *The Wide World of Clothing*,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28, 1968.
4. Dewey, J., *The Field of Value, Value: A Cooperative Inquiry*, ed. R. Lefle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64-77, 1949.
5. Kluckhohn, F. R. & Strodtbeck, F. L.,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New York: Row, Peterson & Co., 1961.
6. Kluckhohn, C. and Others, *Values and Value 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eds, T. Parsons S. & Shils, E. A., N. Y. ; Harper and Row, 1962.
7. Newcomb, T. M. etc.,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8. Allport, G. W. & Vernon, *The Study of Values Manual*, Boston: Houghton Mifflin, 1931.
9. Bender, I. E., *Changes in Religious Interest: A Retest After 15 Years*, *J.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7, 41-46, 1958.
10. Nelson, E. N. P., *Persistence of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14 Years Later*, *Psych. Monogr.*, 68;2, 1954.
11. Kluckhohn, F. R. & Strodtbeck, F. L., *op. cit.*
12. Osgood, C. E.,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Meaning*, *Psycho., Bull.*, 49, 197-237, 1952.
13. Remmers, H. H. & Gage, N. L., *Educational Measurement and Evaluation*,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5.
14. 홍승직,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1963.
_____,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1969.
15. 황응연, *대학생의 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익문사, 15-22, 1975.
16. cf., Allport, G. W., *op. cit.*
17. 황응연, *op. cit.*
18. Lapitsky,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and Insecurity*, Doctori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1.
19. Creekmore, A. M.,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al Projects, No. 783,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92-97, 1971.
20. Hoffman, A. M., *Clothing Behavioral Factors for a Specific Group of Women Re-*

- lated to Aesthetic sensivity and certainn Socio-Economic Psychological Background Factors, 1956.
21. Brown, C. G., Acceptance of Current Male Fashions as Related to General Values and Clothig Attitudes by Faculty Men and Male College Students, *Home Economics Reserch Abstract*, 30, 1973.
 22. Richard, E. A. & Hawthorne, R. E., Values, Body-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Students, *J. of Home Economics*, Vol. 63, No. 3, 190-194, 1971.
 23. 김광경, 1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관심에 관한 연구, 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24. 안정자, 가치관과 의복 선호색과의 상관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78.
 25. Christiansen, K. & Kernaleguan, Orthodoxy and Conservatism- Modesty in clothing selection, *J. of Home Economics*, Vol. 63, No. 40, 251-255, 1971.
 26. Kness, D. M., The Clothing Attitudes and Social-Political Beliefs of University Men Identified as conservative and Hippy Dressors, Pennsylvania University Master's Thesis,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 51, 1971.
 27. 김경희, 임숙자, 여대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착용동기와의 관계연구, 한국의류학회지, 7(2), 1983.
 28. cf., Ryan M. S., *Clothing: A Study of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lt and Winston, Inc., 1966.
 29. cf., Dillon, L. S., Business Dress for Women Corperate Prifessional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2), 1980.
 30. cf., Rosencranz, M. L., *Clothing Concept*. New York; Macmillan Co., 1972.
 31. 간문자, 이인자, 여성의 직업과 의상홍미 영역간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4), 1981.
 32. 박길순, 의복행동과 직업과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4), 1982.
 33. 김광경, 강혜원, 남성적, 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0(2), 1992.
 34. 김원옥, 직업여성의 의복행동과 직업만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4.
 35. 이선화, 임숙자, 성인남자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3), 1984.
 36.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1985.
 37. 황응연, *op. cit.*
 38. Creekmore, A. M., *op. cit.*
 39. cf., McGullough, E. A., et al, Sexually Attractive clothing: Attitude and Us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 1977.
 40. *Ibid.*
 41. Hoult, T. F., Experimental Measurement of Clothing as a Factor in Social Ratings of Selected American Men, 324-328: Ryan, M. S., *op. cit.*, dptj wodlsdyd.

42. Levin, J. & Black, H., Personal Appearance as a Reflaction of Social Attitudes; Stereo Type or Reality.
43. 김경희, *op. cit.*
44. 백선영, *op. cit.*
45. 이은주, 이인자,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개인의 의복행동과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7(1), 1983.
46. Chamber, H. G. & Moulton, V., *Clothing Selection*,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31, 1969.
47. Kelly and Star, *Dress and Idiology in in Lind C., Social-Political Attitudes and Appearance of College Students, Master' Thesis, University of Wisconcin*, 34, 1974.
48. 유명희, 의복의 과시적 소비현상과 사회계층과의 관계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49. 중앙일보, 1994. 7. 11.